

2017년 상반기 이란 자동차 산업 높은 성장세 기록

장윤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연구원

주요내용

- ▶ 2017/18 회계연도 상반기 이란 자동차 생산 및 판매 규모가 전년 대비 각각 17.9%,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이란은 중동 지역 내 최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프랑스 등 외국 자동차 업체의 진출이 이어졌으나 제재 기간 동안 중국을 제외한 다수 기업이 철수하였으며 제재 해제 이후 시장에 재진입하고 있음.
- ▶ 외국기업의 시장 재진입, 차량 노후화로 인한 소비자 수요 증가 등의 요인을 바탕으로 이란 자동차 산업은 빠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한편 산업 육성을 위한 이란 정부의 규제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1. 이슈 현황

▶ 2017/18 회계연도 상반기 이란 자동차 생산 및 판매 규모가 전년 대비 각각 17.9%,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¹⁾

□ 2017/18 상반기 자동차 생산량은 684,300대에 달했으며, 이란 제조사의 자동차 판매량은 603,096대를 기록함.

- 제조사별 시장 점유율은 이란코드로(IKCO)가 49.9%, 사이파그룹(SAIPA Group)이 43.6%로 2개 업체가 시장을 양분함.²⁾
- 종류별로는 승용차 생산 규모가 643,321대로 자동차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함.

□ 이란 자동차 생산 및 판매는 제재의 영향으로 2012년부터 크게 하락하였다가 2016년 제재가 해제된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1) 이란 회계연도는 3월 21일부터 다음해 3월 20일까지임.

2) 이란 자동차 생산은 대부분 CKD(Complete Knock Down) 방식임.

그림 1. 이란 자동차 생산 추이

(단위: 천 대)



자료: ITSR

그림 2. 제조사별 시장 점유율 추이



주: 승용차 기준임.

자료: ITSR

2. 원인과 분석

▶ 이란은 중동 지역 내 최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프랑스 등 외국 자동차 업체의 진출이 이어졌으나 제재 기간 동안 중국을 제외한 다수 기업이 철수하였으며 제재 해제 이후 시장에 재진입하고 있음.

□ 2016년 1월 프랑스 PSA 푸조 시트로엥의 계열사인 푸조와 시트로엥은 각각 IKCO, 사이파와 50:50의 지분으로 합작투자사 설립에 합의함.

- PSA 푸조 시트로엥은 제재 이전 지분투자 없이 생산을 위탁하는 라이선스 방식으로 현지 진출하였다가 철수한 바 있으며 합작투자를 통해 이란 시장 재진입을 본격화함.

□ 2017년 8월 프랑스 르노는 이란 정부 기관인 산업개발혁신기구(IDRO), 민간 업체인 네긴 코드로 (Negin Khodro)와 합작투자사 설립에 합의함.

- 르노는 제재 이전 IDRO와 합작투자사인 르노 파르스(Renault Pars)를 설립하여 IKCO와 사이파를 통해 위탁 생산해왔는데, 르노 파르스는 구형 모델 생산을 유지하고 새로 설립된 합작투자사가 신형 모델을 생산할 예정임.

- 지분율은 르노가 60%, IDRO와 네긴 코드로가 각각 20%이며, 이번 계약에서는 이란 정부가 현지 생산된 자동차의 30% 수출을 의무화한 것이 특징임.

□ 중국 업체는 기존의 주요 외국기업이 철수한 기간 동안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함.

- 중국 자동차 업체의 이란 시장 점유율은 2011년 1%에서 2015년 약 9%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3. 전망과 시사점

▶ 외국기업의 시장 재진입, 차량 노후화로 인한 소비자 수요 증가 등의 요인을 바탕으로 이란 자동차 산업은 빠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한편 산업 육성을 위한 이란 정부의 규제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BMI에 따르면 2020년까지 이란 자동차 생산 및 판매는 10%대의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제재 해제 이후 이란 정부는 외국기업의 현지 투자, 기술이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완성차의 수입 허가를 제한하고 국산부품 사용요건을 적용하는 등 현지 생산을 의무화하여 자국 산업을 발전시키려 함.

- 이는 한국 기업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란 자동차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투자를 통한 생산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미국과의 긴장 관계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 금융제한 등의 리스크 요인으로 기업들의 현지 투자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 간 협력 채널 구축 등을 통한 리스크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EMERiCs**

참고문헌

- Financial Tribune, ILIA Corporation, BMI, 현지 진출기업 자료 등

알립니다

- EMERiCs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릅니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